지역개발연구 제52권 제2호, 2020년 12월, pp.99-113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Vol.52, No.2, 2020
http://dx.doi.org/10.35526/srd.2020.52.2.005

웰니스 기반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 농촌지역 경관을 중심으로 -

정 건 용*

본 연구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브랜드 형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지역 경관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지역마다의 주변 환경여건 및 주민들의 의식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에 획일화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도시지역 공간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지역 6개 경관유형 즉, 농업경관, 자연경관, 건축경관(공공건축물, 주거건축물, 상업건축물), 역사문화경관, 색채경관,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등은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웰니스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웰니스를 기반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창적인 지역 브랜드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민들 스스로 공간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6개 경관유형의 제안은 추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 형식적이며 관료적 시행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별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여러 지역에서 선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연구자의 창의력을 더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 체계 및 제안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며, 적용 효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이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주제어 : 웰니스,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농어촌지역민, 삶의 질 개선

Ⅰ. 서론

농촌지역 경관은 산, 하천, 숲 등 자연적 요소와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경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농촌지역 경관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산물이며, 비교적 긴 세월에 걸쳐 형성됨에 따라,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간문화과가 신설되어 공공디자인(넓은 의미에서 공간디자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디자인 담당부서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공공

* 광주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E-mail: jgy6277@gwangju.ac.kr)

디자인의 대표적 과업 중 하나로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선두 개발 지역이었던 서울시의 분석 및 제안 방식의 틀을 그대로 답습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기후·지형과 같은 자연적 조건과 역사·문화와 같은 사회적 조건,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적용 및 완료 후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민 삶의 토대를 만드는 공간디자인으로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지침 항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웰니스의 개념 및 범위

현대사회에서 최상의 건강의 개념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어 웰니스(wellness)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웰니스란 인간의 삶이 좀 더 성공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인식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최상의 잠재력을 향해 끊임없이 자각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차광석, 20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12)에서 발표한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에 의하면 웰니스의 범위 및 분류는 기관/기업 등 조사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인 요소로 physical(육체적), Social(사회적), Spiritual(영적), 일부 공통적인 요소로 Emotional(정서적), Environmental(환경적), Intellectual(지적), 기타 요소로 Mental(정신적), Cultual(문화적), Psychological(심리적), Vocational or Occupational(직업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웰니스 구성 영역은 지향하는 가치의 특성에 따라, 건강하고 만족하는 개인별 라이프스타일 실현을 위한 Health &Lifestyle 관점에서 건강한 육체(physical Wellness), 건강한 정신(Spiritual Wellness), 감성적 만족(Emotional Wellness),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공간 구현을 위한 Living & Environment 관점에서 물질적 풍요와 편리(Material Wellness), 안정적인 직장환경(Occupational Wellness), 안전한 환

경(Environmental Wellness), 소통하고 즐기는 선택적 참여욕구 충족을 위한 Activity & Relaxation 관점에서 문화적 풍요와 참여(Cultual Wellness), 건전한 사회관계(Social Wellness), 지적 만족(Intellectual Wellness)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웰니스의 개념 및 범위는 특정 산업군[1]을 시대적 배경에 맞춰 성장시키기 위한 지향점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최근 웰니스 관광의 확대와 관심으로 사람들은 웰빙과 힐링을 위해 자연과 문화를 찾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농어촌 관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국내 웰니스 관광, 외국인의 국내 웰니스 관광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농어촌 지역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이정철, 2015). 또한, 유지윤(2006)은 웰니스 관광은 웰빙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관광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하며, 건강증진, 자연 휴양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관광, 전통음식 시식, 조리를 포함한 먹거리, 전통 문화, 농어촌 사찰을 통한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웰니스의 개념과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웰빙(well-being)과 더불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인 관계성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서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다.

2.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이해

특정장소가 지니는 문화적 고유성과 정체성을 살림으로써 지역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 혹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박신자, 2007), 국내의 공간디자인은 1992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후 디자인의 중요성에 의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0년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디자인 분야의 제도적인 사업 환경은 과거 성장과 개발위주의 산업화시기를 거쳐 고도성장을 이룬 정치, 경제, 건축, 부동산 정책 및 건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여전히 건설 산업의 하부 역할로 인식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조혜리, 2012). 특히, 농촌중심지들의 중심가로 및 공공공간들은 사

1) 웰니스를 산업적 측면에서의 개념은 삶의 질 향상과 적극적인 건강증진 등을 위한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생산유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각 지향가치에 대응하는 산업군으로 셀프케어 부문(생활건강 관리, 피트니스·체력관리, 웰에이징 분야), 리빙케어 부문(웰빙웨어, 웰빙 인테리어, 생활환경 관리 분야), 웰니스 엔터테이먼트 부문(휴양레저, 스포테이먼트, 감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상세 분류한다.

실 차량 중심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는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인해 기존 보행중심의 면소재지의 특성이 변화됨으로서 공간의 특수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성진, 2016). 그러나 최근 공간을 하나의 상품[2]으로 보고 문화적 자산과 자원을 통해 마케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으며(정건용 2012), 사회적 인식의 공간디자인은 취약계층은 물론 공공의 편의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특정이 있다(김수진외 2인, 2011). 이에 장소마케팅 전략 중 하나인 공간디자인은 지역주체들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통해, 장소에 대한 자기비전과 정체성을 수립 하고, 마케팅 전략기법을 이용하여 장소성에 기반 한 지역 상품을 지역주민, 기업,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장소 정체성 구축), 지역경제(풍요로운 삶), 지역사회(장소애)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체계적, 연계적, 문화적, 능동적인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무용 2006). 공간디자인에 대한 이용자가 평가하는 디자인의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다. 공간의 기능적 편리함, 시각적인 안정감, 구조와 안전성 그리고 적합한 재료 및 색채의 선택 등 갖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 대상 공간에 한 총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며(이진영, 2012). 자연 환경에 의존하여 진화해온 인간은 자연의 형상을 시각적 호감 요인으로 받아들인다(윤성아, 조택연, 2011).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농촌 지역의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마을경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켜져 나가야될 경관관리가 주축을 이루고, 이는 단기적 사업집행이 아닌 마을규약과 협약에 의한 주민 상호간협력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장기적인 경관형성 유도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농촌 지역의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을 위해 경관개선 및 관리에 대한 방법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는 후속사업들에 대한 일관된 사업유도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독창적인 지역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한 참고적 관리기준이다. 또한,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공적인 경관협약·규약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관협약·규약 자문단의 주민활동 지원과 주민의식 전환을 유도,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공공의 주도하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관에 대한 인식의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2) 장소마케팅과 기존 마케팅의 절차나 행위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이며, 장소마케팅은 장소의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와 관련된 이미지를 파는 것이다. 일반상품은 소모적이지만 장소마케팅의 제품이 되는 장소는 상품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즉 장소는 소비될 수 있으나 소멸될 수는 없는 상품이며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동할 수는 없는 대상이다. 이러한 상품으로써 장소의 특성은 장소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자 매력으로 작용한다.

담당기관은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통해 경관협약·규약 체결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한 마을주민들에게 지원을 통해 공공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경관협약·규약의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Ⅲ. 공간별 디자인가이드라인

본 연구의 주제인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농어촌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3]`에서 규정한 농어촌 6개 경관유형(농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 역사문화경관, 색채경관,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을 기본으로 경관에 미치는 요소들을 통해 경관관리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업경관

적용대상은 축사와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며, 농업생산시설과의 배치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표 Ⅲ-1>과 같이 유도한다. 자연과 조화로운

〈표 Ⅲ-1〉 농업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배치	· 마을 주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 마을경관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단, 관광지, 공원, 유원지, 학교, 문화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자연경관 보전지역)내에 설치를 지양함
외관	·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소재의 친환경 건축재를 사용함 · 농업생산건축물의 외형 중 가장 시인성이 높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지붕은 일관된 색채로 관리함 · 지붕색체는 색채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선정함 · 셋 이상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벽체는 은회색 계열을 권장함 · 원색 계열의 색채 사용을 지양함
식재	· 농업생산시설 주변으로 가시성이 높은 곳에 차폐식재를 하여 부정적인 인공경관을 저감시킴 ·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경관미 향상을 위한 조경공간을 확보함

3) 농림수산식품부(2008)에서 농어촌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어촌의 가치 있는 경관지원을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축사 건축물의 색채는 축사 건축물의 벽체와 지붕 재료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근본 원칙과 기준, 세부적 고려사항 제시한다. 축사, 농산물 보관소, 공동창고 등 농업 생산과 관련한 인공 시설물 경관관리는 마을 전체 경관을 고려하여 농업생산시설의 배치, 색채 등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2. 자연경관

적용대상은 하천 및 저수지 주변으로 생태 보존 및 복원 등을 통해 자연의 건강회복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표 Ⅲ-2>와 같이 형성한다. 생태의 보존 및 복원 등을 통한 자연의 건강회복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변공간을 계획하고, 곤충, 어류, 조류의 서식처 조성기법을 적용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동물의 이동통로를 제공, 물과 수림대를 연결하여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표 Ⅲ-2〉 자연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형태	· 하천지형이 나타내는 하도와 하안 등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보전하여 자연스러움을 유지함 · 어류나 수생식물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유지함 · 사람들이 쾌적한 수변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휴게시설 도입 등 수변공간을 조성함 · 어류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은신처 및 먹이환경을 다양하게 조성함
식재	· 침수성식물(말즘, 매화마름), 부엽성식물(수련, 자라풀 등), 정수성식물(물옥잠, 창포, 달뿌리풀 등), 부엽성식물(개구리밥, 생이가래 등)을 습지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함 · 수변으로 녹음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식재하는 수종은 갯버들, 버드나무류 등이 적합함
부대시설	· 접근성 확보를 위해 수변공간에 산책로, 친수계단, 관찰데크, 징검다리 등을 조성함 ·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도입하여 휴식, 만남, 머무름 등의 활동을 통해 수경관 조망장소로 제공함 ·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여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며, 물놀이장, 친환경낚시터 등을 계획하여 활성화 함

3. 건축경관

1) 공공건축물

마을 중심부에 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지성을 강화하며, 연계되는 공공시설물과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표 Ⅲ-3>과 같이 관리한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지성 강화 및 연계되는 공공시설과의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편의를 도모한다.

〈표 Ⅲ-3〉 건축경관(공공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배치	·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거지와 인접하고, 생활편익시설, 농업관련시설 등과 연계하여 배치함 · 주민들 상호간의 이동시간을 배려함으로서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용률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함
규모 및 형태	· 건축물 지붕은 한옥 기와형태의 전통적인 디자인 권장함 · 단층이나 복층의 형태로 조성을 권장하며, 주변 건축물이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형태로 조성함 · 내·외부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되, 건물 내외장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도함 · 채광 확보를 위해 통유리 구조를 전면부에 권장하며, 차양장치 설치를 권장함
식재	· 전면부, 측면부에 면적 대비하여 벽면녹화를 권장함 ·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경관미 향상을 위한 조경공간을 확보함
외부 공간	·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잔디블럭이나 지피식재 등 자연생태적인 공간으로 권장하며 모임 및 휴게기능을 부여함 · 벤치, 파고라, 정자, 공동창고, 공동화장실 등을 배치하여 마을쉼터 및 마을마당 형태로 연계되도록 조성함
부대 시설	· 내부에는 간단한 운동시설 등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함 · 농한기의 마을회관 이용 증대를 위한 친목 도모의 공간을 위해 내부공간을 계획함

2) 주거건축물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창출하도록 주택 담장, 지붕, 벽채, 재질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표 Ⅲ-4>와 같이 유도한다. 주거공간은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공시설과 일반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의 담장, 지붕, 벽채, 재질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농촌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 효과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형성한다.

〈표 Ⅲ-4〉 건축경관(주거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배 치	· 기존 주택의 경우 현재의 토지현황을 유지하며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함 · 도로변 건축물은 부지경계에서 1m 이상 건축선을 이격하여 녹지조성 및 가로의 연속성을 위한 인접건물과외벽선을 정렬함
규모 및 형태	· 농촌의 전통적인 주거형태를 도입하여 휴식, 작업 등 다목적 기능의 마당과 마루공간으로 구성함 · 지붕형태는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경사형 지붕으로 하며, 한옥 기와형태의 지붕을 권장함 · 외벽은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금속재 사용을 지양함 · 창문은 자연광의 능동적인 유입과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 확보함
마 당	·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며, 경관미 향상을 위한 조경공간을 확보함 · 최대한 녹지공간을 활용하며 화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화단형태를 권장함
담 장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담장 형태의 담장을 권장함 · 전통담장 형태가 아닌(콘크리트블럭 또는 벽돌 담장 등) 경우 전통담장으로 교체를 권장하며, 교체가 어려울 경우 담장 덩쿨식물을 통한 친환경적 경관을 연출함
부대 시설	· 빈집(폐가)은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유도함 · 주차장은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식재를 권장함

3) 상업건축물

건축물의 입면재질, 색채, 디자인 등 주변상업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유도하되, 가로의 보행 장애요소 제거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표 Ⅲ-5>와 같이 조성한다. 건축물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입면재질, 색채, 디자인 등 주변 상업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표 Ⅲ-5〉 건축경관(상업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배치	· 중심지와 인접한 상업건축물은 건축선을 지정하여 전면공지 확보로 상업가로의 개방감 확보함 · 가로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일정폭 건축선을 지정하여 이격시킴
규모 및 형태	· 중심지와 연접한 건축물 간 층고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가로의 통일감 확보함 · 1층 부분은 고정식 차양막 설치는 지양하며, 개패식 차양막으로 일조량 개패면적 조절함 · 단위건물에서 건축외장재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인접한 건축물 외장재와 통일감 있게 하며, 지나친 반사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함
외부 공간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화분 등을 설치하여 녹화공간으로 조성함 · 도로와 인접한 전면공지에 보행을 방해하는 판매시설물이나 간판 등의 설치를 지양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함
옥외 광고물	·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표기함을 권장함 · 인접 간판, 거리, 건축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디자인 함 ·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주변과 부조화 되는 과도한 디자인은 지양함 · 자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을 권장함

4. 역사문화경관

주요 문화재 주변 일정구역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로 문화재와 조화되는 주변 지역을 문화재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표 Ⅲ-6>과 같이 구성한다. 문화재 주변 주요지점에 조망 점을 설정, 문화재로서의 시각 축을 확보하고, 문화재와 문화재 간 연결도로에 대한 경관관리 및 안내체계를 강화한다.

〈표 Ⅲ-6〉 역사문화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배치	· 건축물의 방향이 역사문화자원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건축선을 뒤로 배치하여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함 · 경관적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의 유도 및 설치를 통한 창조적 문화공간 조성을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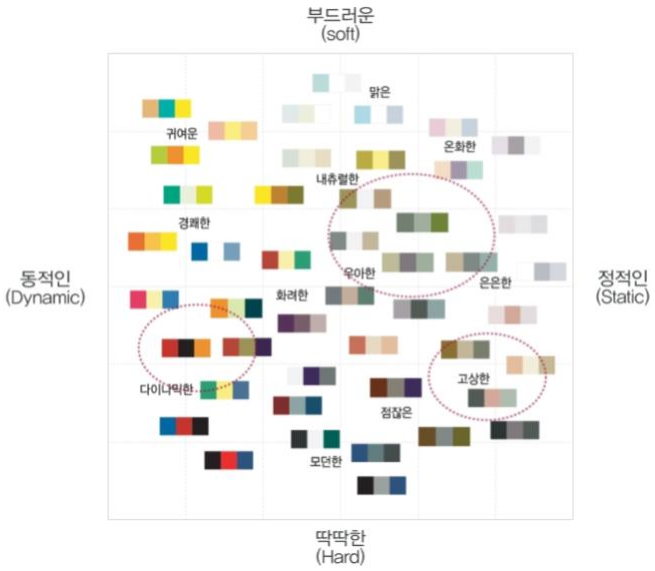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규모 및 형태	· 장대한 규모 및 돌출 건축물을 지양하고 역사문화자원을 돋보이게 하고 조화로운 형태로 계획함 ·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 역사문화자원을 부각시키는 외관을 형성하며, 외벽 면에 반사성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시간에 따라 급격히 노후화되는 재료는 사용을 금지함
오픈 스페이스	· 성곽 및 역사자원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함 · 역사문화 경관을 훼손하는 인공적 구조물 설치와 무분별한 시설물 및 조형물 설치를 지양함
색채	· 소재지 지붕색의 통일성 확보를 통한 원경에서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인지성 및 상징성 강화함 · 재료색 이외에, 적갈색, 단청색 등 역사문화시설에 주로 채색된 색채의 직접적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여 역사문화시설을 부각시키는 색채로 사용함
야간경관	· 역사문화자원 주변 조명에 의한 야간 인식 저하 개선을 위해 역사문화자원이 강조될 수 있도록 조명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제어함 · 역사문화시설 및 주변공간에서의 칼라조명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함

5. 색채경관

주요 적용대상은 가로시설물 등이며 건축적 요소색채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배경색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해 <표 Ⅲ-7>과 같이 적용한다.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와 차별성, 고유성, 강화에 주력하고, 친환경적, 친인간적 색채를 적용한다.

〈표 Ⅲ-7〉 색채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 건축적 요소의 색채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배경색 기능적용을 원칙으로 적용함 · 시설물간 색채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함 · 건축적 스케일을 고려한 색채뉘앙스 적용하고, 고명도, 저채도를 유도함 · 불필요한 패턴 적용 및 영역 세분화 자제함 · 면적조절이 잘 된 주/보조색과 강조색의 패턴적용으로 건물의 Identity부여함
기본 원칙	· 주조색 : 농촌중심지의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는 대표색채로서 농촌중심지 전체의 통일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은은한 색채로 적용함 · 보조색 : 주조색을 보조하는 색채로서 색채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경관의 다양성 확보함 · 강조색 : 인식성을 높이는 엑센트적 요소로서 대표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로 적용함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형용사 이미지 적용	

6.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

지역 내 녹지 거점을 형성하고 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의 중심으로서 쉼터 공간형성을 위해 <표 Ⅲ-8>과 같이 구성한다. 마을 내 녹지 거점을 형성하여 주변 녹지네트워크를 위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마을 내 중심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과 경관미 향상을 위한 조경공간을 조성한다.

〈표 Ⅲ-8〉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배 치	· 마을 진입부, 마을 중심부, 경관자원 등 주민들의 교류가 잦은 공간 및 인지성이 높은 공간에 조성함
규모 및 형태	· 마을주민에게 휴식 및 공동체 공간으로 연계 활용하되, 주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의 공간을 확보함 · 공원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명유례, 노거수, 역사자원, 우물터 등 정체성을 지닌 시설물로 설정함 · 휴게시설, 조경공간, 문화공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함

구분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식 재	·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우선 식재함 · 녹음을 줄 수 있는 은행나무, 비자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층층나무 등을 식재함 · 무궁화, 산수유, 철쭉류, 매화나무, 병꽃나무 등 화목류의 식재를 통해 계절감을 부여함 · 잔디, 질경이 등 초본류를 이용한 지피식재, 석재, 디딤목 등을 통해 자연성을 부각함
부대 시설	·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 평상 등 휴게시설을 설치함 ·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주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을 별도로 설치함 · 공원명, 마을유래 등 특정 마을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마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Ⅳ. 결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간디자인을 올바르게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시작하였다. 현재까지의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평가와 효과적인 적용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웰니스 개념의 농촌지역 공간디자인 계획이 절실하며,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획일화 되거나 그 기본 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지역여건이 고려된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설계 및 평가 시 적합한 요소가 도출된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결국, 농촌지역 공간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시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게 수립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공간별 분류에 맞춰 농촌 공간디자인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공간디자인은 지역의 특성에 근거한 통합적인 디자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디자인 기본 원칙 확립과 디자인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있는 경관지원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농어촌경

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경관유형 즉, 농업경관, 자연경관, 건축경관(공공건축물, 주거건축물, 상업건축물), 역사문화경관, 색채경관,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 등에 따라,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농업경관은 적용대상은 축사와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며, 농업생산시설과의 배치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자연경관은 하천 및 저수지 주변으로 생태 보존 및 복원 등을 통해 자연의 건강회복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건축경관 중 공공건축물은 마을 중심부에 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인지성을 강화하며, 연계되는 공공시설물과의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건축경관 중 주거건축물은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창출하도록 주택 담장, 지붕, 벽채, 재질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업건축물은 건축물의 입면 재질, 색채, 디자인 등 주변상업건축물과 조화되도록 유도하되, 가로의 보행 장애요소 제거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경관은 주요 문화재 주변 일정구역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로 문화재와 조화되는 주변지역을 문화재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고, 색채경관은 주요 적용대상은 가로시설물 등이며 건축적 요소색채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배경색을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부공간 및 기타시설물 경관은 지역 내 녹지 거점을 형성하고 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의 중심으로서 쉼터 공간형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제시하는 통합적 개념의 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를 통해 자연경관 및 시설물 등과 더불어 주변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역브랜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수진, 김경진, 유진형, “비영리단체(NPO)의 디자인 활동에 나타나는 공간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버드하우스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6권 제3호, 2011, pp.21-28.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2018.

박성진, 염대봉, “농촌지역 중심지 공공공간에 대한 주민 인식도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6, pp.87-96.

박신자, “지역문화와 도시공간의 문화전략에 관한 연구-안양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

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2권 제2호, 2007, pp.117-126.
유지윤,『관광 산업복·융합화 촉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윤성아, 조택연, “자연의 형상질서 이해와 보편적 아름다움으로서의 공공 공간디자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6권, 제3호, 2011, pp.29-36.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서울 : 논형, pp.69-70, 2006.
이정철, “농어촌지역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방안-웰니스/의료관광을 중심으로”,『한국도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pp.75-92.
이진영, “상업공간에 적용되는 해학적 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식음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7권 제4호, 2012, pp.141-153.
정건용, “지역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방안 연구-장소마케팅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제18권 제3호, 2012, pp.442-451.
조혜리, “공간디자인 산업의 디자인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디자인산업의 정책과법·제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12. 제7권 제2호. pp.89-103.
차광석, “웰니스의 학술적 연구 동향-한국웰니스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7, pp.623-63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형 웰니스산업 동향분석 및 발전방안』,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Wellness-Based Space Design Guidelines

- Focused on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to Improve Residents' Quality of Life -

Geonyong Jeong

College of Culture and Arts Gwa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standard for landscape improvement and management in rural communities to prepare a consistent space design guideline and suggest the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a local brand from a long-term view. Six landscape types for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suggested in the study should be established in a long-term plan from a wellness view to improve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enhance loc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residents should participate and strive in all acts which influence space design to enhance local identity and make a unique local brand based on wellness. The six landscape types will suggest a direction for more substantial and rational design guideline rather than formal and bureaucratic enforcement in further development of space design guidelines. Application effects should be further discussed and evaluated.

Key Words : Wellness, Space design guideline, Rural and fishing residents,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논문접수일 : 2020.11.25.
심사완료일 : 2020.12.18.
게재확정일 : 2020.12.22.